



서성배
(사)한국계육협회장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꽃바람이 너울대는 4월에 들어 뜻하지 않게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인체 감염을 우려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기피 현상이 이어져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단기간에 사육, 출하하는 닭고기, 오리고기 소비가 주춤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해당 농가와 관련업체 등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글자 그대로 조류에 발생하는 인플루엔자임에도 일부 소비자들은 인체에 피해를 주는 독감을 연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닭고기, 오리고기 먹기가 부담스럽다는 인식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절실한 이유다.

닭, 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급성바이러스성 전염병인 AI는 가금류 자체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만,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질병이다.

고병원성 AI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인체에 감염돼 사망한 사례도 있으나, 보건의료체계가 낙후된 국가에서 발생했을 뿐이고, 미국, 일본, EU등 선진국에서는 인체감염 사례가 없다.

인체에 감염된 사례도 AI에 걸린 닭, 오리 등을 직접 접촉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다.

사람에게 감염된다면, 사육농가나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일차적인 피해가 올 텐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감염사례가 전혀 없다.

또한 AI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는 전량 매몰 처리되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인근 지역 가금류도 방역당국이 반출을 철저하게 통제한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이 먹는 닭고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닭고기이다.

AI위험이 과장되어 있음을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TIME' (2006년 11월 25일)에서 지적한 바 있다. '사람들은 일반 독감보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언론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도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쉬운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지 말고, 객관적 사실보도에 노력하여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하도록 해줘야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AI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반면, 일반 독감에 따른 사망자는 매년 3만 6천명이나 된다.’ 그래서 ‘TIME’에서 AI가 사람들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위험성이 과장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도한 것이다.

설사 AI에 감염된 닭고기, 오리고기가 유통되고 있다 해도 75℃에서 5분간 가열하면, AI가 모두 사멸되므로 익혀먹는 닭고기는 질병 감염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세계 67개국에서 AI발생이 보고되었지만, 사람이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고 죽은 경우는 없다. 익혀 먹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AI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 점검이 철저한 일본에 우리의 삼계탕 수출은 지속되고 있다.

1960년대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수명은 52세 정도였으나 2006년 기준 평균수명은 79세이다. 평균적으로 60년대 이후 2년에 1세씩 늘어났다고 한다. 예전보다 공기도 나빠지고 물도 오염되었다는데 더 오래 사는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첫째로 보건위생 수준의 향상 및 의료체계의 발전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한다.

닭고기의 경우도 1인당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1995년에는 6.1kg이었으나 2007년에는 13.3kg으로 배 이상 증가되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닭고기는 저지방,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고단백질인 3저 1고의 식품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암 학회에서는 대장암을 예방하는 식품중의 하나로 백색육인 닭고기를 꼽을 정도이다.

미국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도 1995년 31.8kg에서 2007년에는 46.2kg으로 증가되었다.

닭, 오리 자체에는 타격을 주지만 시중 유통되는 닭고기나 오리고기의 안전성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건강식품인 가금육 소비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어서 생산농가 등의 피해를 줄여 줘야 한다.

우리 언론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도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쉬운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지 말고, 객관적 사실보도에 노력하여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하도록 해줘야한다. 